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자신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마태 21,28~32)

교황청, 기혼자 사제 임명 검토

교황청이 '사제 구인난' 을 해결하기 위해 기혼자를 가톨릭 사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은 현재 독신 남성에게만 사제 서품을 허가하고 있다.

17일 교황청이 공개한 10월 남미 주교회의 준비 문서에는 사제가 부족한 아마존 일부 외곽 지역에 신앙심이 검증된 기혼자를 사제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여성에게 '공식 직무' 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식 직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녀회 등이 요구해 온 '부제' 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황청은 남미 주교회의가 열리면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교황청이 사제 독신주의를 깨뜨리려는 이유는 결혼 때문에 사제를 포기하는 사제 지망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제 수 감소로 일부 지역에서는 신자들이 몇 달 동안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심이 검증된 기혼자를 사제로 임명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2017년 독일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신앙심이 검증된 기혼자에게 사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사랑의 캠프 개최 남가주 밀알선교단

남가주 밀알선교단이 오는 27일-29일까지 CSU 롱비치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 를 연다.

'Ohana in Christ' 라는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성찬식과 세족식을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와이어인 'Ohana' 는 '가족' 을 뜻하며, 캠프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장애인들과 함께 꿈과 소망, 믿음을 나누기 위해 1979년 설립된 비영리 기독교단체로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후원 문의: (562) 229-0001, milalmission.com

신앙의 열매를 세속의 눈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요지경'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개판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느님의 칭찬을 받아 천당에 일찍 들어가는가 하면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주님의 호된 꾸지람을 받아 천당문 밖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주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마태 21,31).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요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도대체 창녀들만 못하며 도둑이나 세리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창녀나 도둑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하시느냐? 아주 뻔한 것입니다. 도둑이나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사제와 원로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불행도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당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



옛날 어떤 임금이 교도소를 순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임금에게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임금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을 동정해 주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 훌쩍 울고 있더군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처지라고 한탄하더군요.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곳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에 들여보냈느냐고. 그래서 그 죄인은 그 날로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면 그는 여전히 천당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자비를 빌었을 때 그는 이미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도둑이었던 세리도 자신이 부정직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했을 때 그는 이미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람은 자신의 공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용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너무도 무시했던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주제파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파악이 안 되면 아주 괴곤합니다. 구체를 능입니다. 하느님은 무슨 잘못이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제파악이 안 되는 죄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하시고 싶어도 계속 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앙은 어찌보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잘 살고 잘 믿는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